

정경옥(鄭景玉)의 실용주의(實用主義) 신학 분석*

안수강(백석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내용

II. 실용주의에 입각한 성경관 및 감리교 교리관

1. 경전으로서의 '성경'과 인간 '이성'과의 조화
2. 교리주의에 대한 입장
3. 실용주의 지침으로서의 감리교 교리 이해

III. 실용주의 노선 분석

1. 역사와 삶의 경험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
2. 토착화론을 통해서 본 실용주의 노선
3. 신학의 역사성을 통해서 본 실용주의 노선
4. 기독교 도덕관을 통해서 본 실용주의 노선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3.06>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1232).

• ABSTRACT •

An Analysis of Gyeong-Ok Jeong's Pragmatic Theology

Adjunct Prof. Ahn, Su-Kang (Baekseok University)

Gyeong-Ok Jeong was born in Jindo in 1903 and died in 1945 at the age of 42. He took the charge of the various roles as great Methodist minister, systematic theologian, Christian author, theology professor, preacher under a colonial policy of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yeong-Ok Jeong's pragmatic theology, focusing on the piety and sanctification. First,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view of the Bible and Methodist doctrine in pragmatism' and 'pragmatism line.' In particular, analyzing Jeong's confession and pragmatic theological thoughts, this paper clarifies what is his main theological line and perspectives on the nature of Christianity. Second, this research analyzes the main aspects of his inner confession and pragmatic theology such as 'the pragmatic view of the Bible', 'anti-dogmatism', 'the pragmatic understanding of Methodist doctrine', and so forth. Third, this paper concentrates on his pragmatism line such as 'history and experience', 'indigenous theology', 'the historicity of theology', 'the view of Christian morality', and so on.'

Key words: Gyeong-Ok Jeong, Pragmatic Theology, Bible, Sanctification, Piety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해방 전 감리교신학의 초석을 다진 신학자 정경옥(1903-1945)의 실용주의 신학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기독교인들의 경건성과 성화를 진작시키려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의 종교개혁(Nadere Refomatie) 신학자로 지명한 슈테플러(F. Ernest Stoeffler)는 『복음적 경건주의의 발흥』(*The Rise of Evangelical Pietism*)에서 삶을 개혁하기 위한 각성운동에는 인성(人性)의 성화와 삶의 현장을 강조하는 체험성, 경건의 완전성, 오직 성경을 규범으로 주장하는 성경주의(Biblicism), 저항 및 개혁 정신이 함축된다고 했다.¹⁾ 교의학자 바빙크(Herman Bavinck)는 『하나님의 큰 일』(*Magnalia Dei*)에서 복음적인 의미로서의 성화란 신앙의 지속적인 활용이자 실천이라고 강조했으며,²⁾ 변증학자 반틸(Cornelius Van Til)은 『신앙변증』(*The Defence of the Faith*)에서 인간이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성경적 최고선(Biblical summum bonum)은 개인의 악과 사회의 악을 근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³⁾ 경건주의 학자 브라운(Dale W. Brown)은 성경의 실천에 대해 진정한 경건은 성경으로 기술된 문자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영험화(靈驗化)하고 생활화할 때 진정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그는 성경에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고 말씀이 경건으로 연계되지 못할 때는 단지 ‘죽은 문자’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⁴⁾

1) F. Ernest Stoeffler, *The Rise of Evangelical Pietism* (Leiden: E. J. Brill, 1965), 9-23.

2) Herman Bavinck/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503.

3) Cornelius Van Til, *The Defence of the Faith*(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64.

이처럼 경건과 성화는 믿음과 행위의 지표인 성경을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용화하여 실천함으로써 깊이 있게 추구해갈 수 있다.

초기 한국기독교는 종교개혁기의 개혁정신에 견줄 수 있었을 정도로 구령사역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활화함으로써 경건한 삶과 성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금주금연, 축첩(蓄妾) 금지, 노비 면천, 반상(班常) 신분 혁파, 데릴사위제와 민며느리제 금지, 조혼 및 수양남매 결연 폐지, 투전 및 기방출입 엄금, 마약퇴치, 음담패설의 악덕 제거 등의 귀한 전통은 한국적 기독교로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고결한 자산이기도 했다.⁵⁾ 그러나 급속한 서구문물 도입과정에서 야기된 문화지체 현상(cultural lag),⁶⁾ 신사참배의 수모, 교계의 헤게모니(hegemony), 동란의 참화, 이단 출현, 경제의 급성장과 맘모니즘(mammonism) 현상, 정치적 혼란과 민주화 투쟁, 교단분열, 인터넷 보급, 정보화, 세계화 등 급변하는 시대상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차츰 세속화의 흐름에 편승했다. 그리하여 현 한국교회는 경건성이 약화되고 성화의 정신이 이완되어 영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임성빈이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신자답지 못해 교회의 제도적 신앙적 기능적 역할의 부족성이 드러났고, 교회에 대한 대외적 인식이 악화되는 실망스런 결과를 초래했다.⁷⁾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과 관련하여 주도홍은 그동안 한국기독교가 ‘무엇을 바로 믿어야 할까’(what to believe)라는 사안에만 심혈을 기울였지 ‘어떻게 그 복음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how to live)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적실하게

4) Dale W. Brown/오창윤 역, 『경건주의 이해』(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92.

5) 안수강,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9집(2014), 140-141.

6) 사회학자 오그번이 1922년에 주장했으며 물질문명의 변화에 비해 비물질적 정신적 문화요소의 변동 속도가 늦기 때문에 가중되는 혼란을 가리킨다. cf. William Fielding Ogburn, *Social Change With Respect to Culture and Original Nature*(S. I.: Andesite Press, 2017).

7) 임성빈, “21세기 초반 한국 교회의 과제에 대한 소고-공공신학적 관점에서,” 『長神論壇』 제47권 2호(2015), 195.

논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⁸⁾ 즉 기독교인들이 이론상의 도그마에만 치우쳤을 뿐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용화하지 못해 성경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만성적 병폐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부지런히 성도들의 경건성과 성화를 진작시키고 바른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짊어졌다. 이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경전인 성경을 단지 ‘문자’로서만 내면에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를 외연(外延)하여 삶의 현장에서 ‘실용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일평생 교편생활과 저술사역을 통해 성경의 실용화와 실천을 술회한 정경옥의 ‘실용주의 신학’을 고찰하게 되었다. 정경옥은 한국감리교 역사에서 신학의 초석을 놓은 석학이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주(Illinois) 개렛신학교(Garret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수학한 이래 『神學世界』의 주간을 맡아 재직기간 중 무려 60여 편에 달하는 신학논문들을 발표했고 『監理教敎理』, 『基督教의 原理』, 『基督教神學概論』, 『그는 이렇게 살았다』 등 비중 있는 저서들을 간행하여 후학양성에 매진했다. 이만열은 정경옥의 신학사적 위치에 대해 장로교의 박형룡과 더불어 학문적인 토대 위에서 최초로 신학저술을 펴낸 학자로 보았으며, 그 이후 김재준과 함께 한국 신학계의 방향을 설정해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⁹⁾ 정경옥은 1932년에는 위기신학(crisis theology)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신정통주의(neo-orthodoxism)의 거장 바르트(Karl Barth)를 소개했다.¹⁰⁾

본래 실용주의는 어원적으로는 ‘실행’, ‘실험’, ‘사무’ 등을 뜻하는 용어에

8) 주도홍, 『새로 쓴 세계교회사』(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10), 671-672.

9)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343.

10) 정경옥은 『神學世界』 17권 5호(1932)와 21권 3호(1936)에 ‘위기신학’을 게재했다.

서 나온 말이며, 철학사전에서는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적 경험론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지주의(主知主義)를 배격하는 입장을 취하는 사상으로 정의한다.¹¹⁾ 『Baker's 신학사전』(*Baker's Dictionary of Theology*)에서는 “진리는 선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교의적 가르침으로 정의하며 “선행으로 이끄는 것만이 참되다”는 논지를 강조한다.¹²⁾ 본 논문에서는 이 용어를 성경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서 유용하게 실천함으로써 최상의 선을 구현한다”는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내용

지금까지 정경옥에 관한 연구는 자유주의 신학, 신학적 배경, 성경관, 교육관, 윤리사상, 생애, 저술 작업, 토착신학 등을 핵심논제들로 삼았으며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송길섭은 “鄭景玉의 自由主義 神學”이라는 제하에 정경옥의 신학교육의 배경과 신학방법론, 기독교의 절대성과 성경관을 논했다.¹³⁾ 박대인은 “鄭景玉 教授의 神學思想에 나타난 美國神學의 背景”에서 정경옥과 서양사상과의 관련성, 신학적 자세, 사상구조와 방법론, 그의 관심사와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¹⁴⁾ 김철손은 “鄭景玉과 聖書研究”에서 정경옥의 성경에 대한 입장, 성경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성경의 현실화, 자유주의 신학을 숙고하여 그의

11) 편집부(편), 『세계철학대사전』(서울: 교육출판공사 1987), 1172. ‘프레그머티즘 항목.

12) Everett F. Harrison(ed.)/신성중 역, 『Baker's 신학사전』(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6), 348. ‘선행’(good works) 항목.

13)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330-343.

14) 박대인, “鄭景玉 教授의 神學思想에 나타난 美國神學의 背景,” 『神學과 世界』 제5호 (1979), 173-205.

실용주의 태도를 조망해볼 수 있는 지침을 주었다.¹⁵⁾ 차풍로는 “鄭景玉의 神學과 生活에서 본 人格主義教育”에서 정경옥의 인격주의 교육사상과 교육자로서의 인격주의 교육 실체에 대해 논함으로써 기독교 교육관을 연구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했다.¹⁶⁾ 박봉배는 “鄭景玉의 神學과 倫理”에서 정경옥의 윤리관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사상적 배경과 신학적 위치, 신학과 윤리사상을 연구하여 윤리학적 관점에서 후속 연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제언했다.¹⁷⁾ 2000년대 들어 발표된 주요 연구로서는 정경옥의 저서 『基督敎의 原理』와 『基督敎神學概論』을 통해 그의 복음적 삶을 살핀 심광섭의 “철마(鐵馬) 정경옥의 복음적 삶(生)의 신학”,¹⁸⁾ 이덕주의 “敎理的 宣言”과 『基督敎의 原理』를 고찰한 “한국 감리교회 신앙과 신학 원리에 대하여: 1930년 〈교리적 선언〉과 정경옥의 《基督敎의 原理》를 중심으로”,¹⁹⁾ 신학 및 영성을 주제로 최병헌과 정경옥을 논한 “초기 한국교회 토착신학 영성: 최병헌과 정경옥의 신학과 영성을 중심으로”²⁰⁾ 등이 있다.

본 연구자의 소견으로는 정경옥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아직 ‘실용주의 신학’ 관점을 단일주제로 설정하여 발표된 논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그의 실용주의 신학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로서 김철손의 “鄭景玉과 聖書研究”, 이덕주의 “초기 한국교회 토착신학 영성: 최병헌과 정경옥의 신학과 영성을 중심으로”, 심광섭의 “철마(鐵馬) 정경옥의 복음적 삶

15) 김철손, “鄭景玉과 聖書研究,” 『神學과 世界』 제5호(1979), 22-46.

16) 차풍로, “鄭景玉의 神學과 生活에서 본 人格主義教育,” 『神學과 世界』 제5호(1979), 71-96.

17) 박봉배, “鄭景玉의 神學과 倫理,” 『神學과 世界』 제5호(1979), 47-70.

18) 심광섭, “철마(鐵馬) 정경옥의 복음적 삶(生)의 신학,” 『神學과 世界』 제70호(2011), 120-153.

19) 이덕주, “한국 감리교회 신앙과 신학 원리에 대하여: 1930년 〈교리적 선언〉과 정경옥의 《基督敎의 原理》를 중심으로,” 『神學과 世界』 제44호(2002), 106-133.

20) 이덕주, “초기 한국교회 토착신학 영성: 최병헌과 정경옥의 신학과 영성을 중심으로,” 『神學과 世界』 제53호(2005), 189-221.

(生)의 신학” 등 세 편의 논문은 성경의 현실화, 토착신학, 복음적 삶의 취지를 담아 정경옥의 실용주의 신학을 고찰할 수 있도록 논점들을 제시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정경옥의 실용주의 신학을 체계성 있게 논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추후 이 논지와 관련하여 발전적 담론을 창출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신학을 지금까지 단일 학술주제로 다루지 못한 실용주의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며 ‘실용주의에 입각한 성경관 및 감리교 교리관’, ‘실용주의 노선 분석’으로 장(章)을 편성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경옥이 남긴 다양한 원자료들 가운데 교리와 신학사상을 정리한 『監理教敎理』, 『基督教의 原理』, 『基督教神學概論』, 도덕적 관점을 논한 『그는 이렇게 살았다』 등 단행본들을 비롯하여 기타 단편적인 글들을 주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II. 실용주의에 입각한 성경관 및 감리교 교리관

정경옥의 성경에 대한 고백적 진술은 『基督教神學概論』에 깊이 있게 기술되어 있으며, 교단적 배경을 담은 『監理教敎理』와 이후 이를 대폭 증보한 『基督教의 原理』를 통해서도 감리교 교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성경관을 밝혔다. 본 장에서는 그의 경전으로서의 ‘성경’과 인간 ‘이성’과의 조화, 교리주의에 대한 입장, 그리고 감리교 교리에 대한 제반 이해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지향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조망하고자 한다.

1. 경전으로서의 ‘성경’과 인간 ‘이성’과의 조화

정경옥은 신학이 보여주어야 할 책무와 관련하여 “神學의 任務는 聖書의 釋義에 있다”²¹⁾라고 단언했을 정도로 그의 신학의 원천적 텍스트는

성경이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信仰과 生活에 있어서 唯一한 標準이 된다”²²⁾라고 자부하여 투철하게 말씀을 믿음과 행위의 좌표로 삼았다. 김철손은 “만일 정 교수에게 그의 신학의 text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는 서슴치 않고 ‘聖書’라고 대답했을 것”²³⁾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정경옥의 신학뿐 아니라 그의 신앙과 사상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성경에서 기원한다고 파악했다.²⁴⁾ 김철손의 주장대로라면 신앙과 행위를 성경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정경옥의 태도는 언뜻 장로교의 보수 성경관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다.

그러나 필히 분별해야 할 점이 있다. 정경옥이 신앙과 행위를 철저히 성경에 기초했다는 것은 그 의미에 있어 당대 장로교의 박형룡이 축자영감론에 뿌리를 두고 성경을 조명했던 변증적인 자세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정경옥은 이성론의 합리화를 배제하고 보수주의 성경론을 전개한 박형룡의 입장²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박형룡과는 달리 성경을 대하는 인간의 자율적 이성과 역량을 중시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자발적 적용과 실천을 강조했다. 참고로, 20세기 들어 성경과 윤리학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두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의 문자적 수용이고, 다른 관점은 이성에 의한 상황 속에서의 재해석 및 응용이다.²⁶⁾ 정경옥은 이중 후자의 견해를 취했다.

성경영감론과 관련하여, 정경옥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모

21) 정경옥, 『基督教神學概論』(경성: 감리교회신학교, 1939), 11.

22) 앞의 책.

23) 김철손, “鄭景玉과 聖書研究,” 26.

24) 앞의 글, 30.

25) 박형룡은 교의신학 서론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와 완전충족성을 근간으로 이성론(理性論)의 성경관이 인본주의와 불가지주의(不可知主義)로 경도되었다고 지적하여 정경옥의 성경관과는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박형룡, 『教義神學 序論』(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282-289, 298-299.

26) 김희수, “기독교윤리와 성경,” 『기독교사회윤리』 제4집(2002), 134.

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πασα γραφη θεοπνευστος)²⁷⁾의 문구를 박형룡이 축자영감론의 근거로 입증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정경옥은 성경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聖書가 우리에게 주는 心靈的 見識과 靈感과 動力을 얻자는 데 있다”²⁸⁾라고 주장하여 인간 내면에서 우리나라는 자발적이며 역동적인 이성의 작용을 중시했다. 정경옥의 이러한 소신은 실용주의 텍스트로서의 성경과 인간의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근간이자 성경관의 단초가 된다. 그가 말하는 이성은 과거에 성문화된 성경의 텍스트에 담겨진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here and now) 적극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한 실사구시의 실천적 염원과 직결된다. 이 신념을 기반으로 삼아 정경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 대한 신학적 비판과 문헌적 비판까지도 포용했을 정도였다.

現代의 聖書에 對한 態度는 먼저 聖書의 內容을 아무 가리움이 없이 그대로 批判하고 研究하고 吟味하고 生命 삼자는 데 있다. (중략) 現代의 解釋에 依하면 聖書는 聖書 그대로 가장 自然스럽게 그리고 自由스럽게 批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⁹⁾

또한 성경의 영감범주에 있어서도 그는 완전영감(plenary inspiration)이 아닌 부분영감(partial inspiration)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시 감리교 학계에 자유주의 신학에 입각한 성경비평론의 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정경옥이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이성적 작용을 중시했다는 한 단면이

27) ‘θεοπνευστος’는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 그리고 피동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차영배, 『H. Bavinck의 神學의 方法과 原理』(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5), 331. KJV에는 ‘inspiration of God’로, NIV에는 ‘is God-breathed’로, NEB에는 ‘inspired Scripture’로, NASB, TEV, RSV, JB에는 ‘is inspired by God’로 번역되었다.

28) 정경옥, 『基督教神學概論』, 406.

29) 앞의 책, 405.

된다. 그는 『基督敎의 原理』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³⁰⁾라는, 1930년에 발표된 감리교의 “敎理的 宣言”을 ‘주’(註)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석했다. 그는 이 주석에서 부분영감설을 지지했으며,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차원에서 성경의 충족성을 강조했다.

「舊約과 新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論理學 上으로 解釋하자면 大概 세 가지 各異한 意味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聖經 가운데 어느 部分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느 部分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중략) 둘째는 聖經이란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다 周延식혀서 聖經의 말씀 全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중략) 셋째로 「舊約과 新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聖經에 記錄되어 있는 것 外에도 또 있으나 聖經에 記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指摘하는 意味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중략) 聖經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生活을 바로 指導하는 指針을 삼기에 넉넉하다는 뜻으로 解釋이 된다.³¹⁾

결국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라는 고백에 대해 정경옥이 주석을 통해 보여준 소신은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일체 가감(加減)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자적 의미로서의 말씀의 ‘충족성’(sufficiency)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가 주석한 윗글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서 ‘믿음과 生活을 바로 指導하는 指針’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30) 정경옥, 『基督敎의 原理』(경성: 감리교회신학교, 1935), 95. 이 조항은 현 기독교대한 감리회의 “교리적 선언” 제5항에 게재되어 있다. 전용환(편), 『감리교신앙생활』(서울: 기독교대한감리교회교육국, 1992). cf. 정경옥, 『基督敎神學概論』, 11.

31) 정경옥, 『基督敎의 原理』, 95-96.

그는 실용적 관점에서 이성적 작업이 성경에 개입되어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해석 및 보완의 과정이 투사될 때 비로소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텍스트로 삼아 실천할 수 있고, 신행일치의 참된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는 입장을 관철한다.

2. 교리주의에 대한 입장

본래 한국감리교는 관례적으로 교리적인 면보다는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의 면모를 중시했으며, 신학사상에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교단통합을 추진하는 에큐메니즘(ecumenism) 정신 또한 투철했다. 1930년 12월 2일 협성신학교에서 개최된 남북 감리교 통합총회는 교리선언을 통하여 교리적인 면에서는 포용적 정신을, 실천적인 면에서는 도덕성과 신령한 인품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선언은 감리교의 교리에 대한 입장을 남북 감리교의 통합행사를 기해 공적으로 선포했다는 점에서 한국감리교회사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 教會의 會員이 되어 우리와 團合하고자 하는 人們에게 아무 敎理的 試驗을 強求하지 않는다. 우리의 重要한 要求는 예수 그리스도께 忠誠함과 그를 따르려고 決心하는 것이다. (중략) 누구든지 그의 品格과 行爲가 참된 敬虔과 符合되는 以上에는 個人 信者의 充分한 信仰 自由를 옮겨 認定한다.³²⁾

정경옥 역시 감리교의 교단통합이라는 명분과 에큐메니즘 술선에 순응하여 폭넓게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고수했다. 그는 감리교교리의 특색을 논함에 있어 자신의 교리서 책자인 『監理敎敎理』와 『基督敎의 原理』의 서

32) 민경배, 『韓國基督敎會史』(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463. 재인용. 원문 출처: *KMF*, Vol. 27, No. 1, 2-3.

두에서도 의도적으로 교리를 ‘주의’(ism)로 절대화하는 일을 경계하여 기록했다. 이는 그가 감리교 교리신학을 담는 이 두 저서를 집필할 때 처음부터 ‘교리주의’를 거절한다는 대전제를 두고 착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감리교는 교리주의를 고집하지 아니한다. 감리교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무슨 강령을 만들어서 내세우지 아니하였다. 웨슬레도 신학 상으로 보아서 영국 교회의 입장과 다른 것이 없었다. (중략) 나는 “어떤 의견만을 앞세우는 일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내게 속이 들고 알맹이가 있는 종교를 다오 (중략)”라고 하였다. (『監理教教理』)³³⁾

監理教는 歷史 上으로 보자면 本來가 一定한 教理를 만드려 主張하는 것이 없었다. 長老敎로 말하면 웨스터민스터 信經이 있고 英國 聖公會에는 三十九條의 教理(엘리자베스 1세 재위 연대인 1571년 의회 통과-연구자 주)가 뚜렷이 있으며 天主敎에는 추렌드 議會(Council of Trient-연구자 주)에서 宣布한 教理가 있으나 監理敎에서는 이렇게 獨特한 信經을 만드려 둔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監理敎는 웨슬리를 믿는 宗教가 아니오 웨슬리 先生이 믿든 것을 그대로 따라 가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다. (『基督教의 原理』)³⁴⁾

위의 두 인용문에서 장로교, 성공회, 가톨릭이 각기 공적으로 신조와 교리를 제정하여 가르쳤던 사례에 견주어 “監理敎에서는 이렇게 獨特한 信經을 만드려 둔 것이 없었다”라든가 “웨슬리를 믿는 宗教가 아니오 웨슬리 先生이 믿든 것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에서 어떤 규정된 틀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자율적인 태도를 포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권위에 기초를 둔 구속력 있는 교의보다는 온건한 차원의 교리를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3) 정경옥, 『監理教教理』(서울: 신생사, 1966), 12.

34) 정경옥, 『基督教의 原理』, 3.

정경옥은 결코 감리교가 공인하는 보편적이며 고백적인 신앙을 등한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감리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신념체계에 적극 투사시킴으로써 감리교의 독특성과 정체성을 구현해내고자 노력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3절 “실용주의 지침으로서의 감리교 교리 이해”에서 살펴볼 것이다.

3. 실용주의 지침으로서의 감리교 교리 이해

정경옥은 『監理教敎理』에서 감리교가 표방하는 보편적인 신앙을 ‘경험’과 ‘거룩’이라는 두 가지의 본질적 요소들로 압축하여 함축성 있게 고백했다. 그가 논하는 경험과 거룩은 신자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고투하며 체득해가는 역사적 체험의 산물이며, 능동적으로 실용주의를 추구하려는 자신의 소신과 맞닿아 있다.

첫째로 감리교는 우리의 기독교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히 사귀는 생활을 하는 데 있다고 가르친다. 둘째로 우리의 종교 생활은 거룩하여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청교도적 정신을 받은 것으로서 웨슬레는 의무에 대하여 항상 역설하신 바이다.³⁵⁾

정경옥의 입장에서 감리교의 공통된 신앙이 지향하는 지고의 종착점은 이처럼 ‘경험’과 ‘거룩’이라는 두 축에 집약된다. 이는 두 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 지평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의 신념에는 경험 즉 삶의 질에 의해 거룩성이 구현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두 축이 긴밀한 유기적 관계구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35) 정경옥, 『監理教敎理』, 12-13.

그는 『基督教의 原理』에서는 이 거룩성을 ‘경건주의’에, 그리고 경험을 ‘복음주의’에 연계하여 이 양자가 상합(相合)되고 합류되는 학술적 체계로 정립하고자 했다. 그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가 한 지평에서 결합되어 견고하게 구형된 양태를 가리켜 ‘생의 宗教’라고 정의했다. 이는 그가 ‘경험’으로 대변되는 복음주의와 ‘거룩’으로 대변되는 경건주의 양자를 기독교 요체(要諦)의 양 기둥처럼 중시함으로써 절실하게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敬虔主義의 意義를 說明하기로 하자. 基督教에는 大概 세 가지 形態가 있다. 첫째는 制度的인 基督教이다. (중략) 둘째는 教理的 基督教이다. (중략) 마즈막은 靈的이며 道德的인 生活에 基礎한 人格的 宗教이다. 하나님의 至極하신 사랑이 예수 안에 나타나사 人類를 救贖하시매 우리는 하나님을 依賴하고 服從하며 사랑과 奉仕의 精神을 가지고 生活하는 것이 곧 基督教라고 말한다. 물론 宗教에는 以上 세 가지 要因이 다 圓滿하게 涵蓄되어 있어야 한다. (중략) 그러나 이 中에 무엇을 第一 主要한 目標로 하고 무엇을 副隨條件으로 하느냐를 決定하는 데 있어서 宗教의 態度에 差異가 생기는 것이다. (중략) 監理教는 生의 宗教를 가라챘다. (중략) 監理教에서 重要하게 생각하는 것은 福音主義이다. (중략) 이 救贖의 經驗을 다른 사람에게도 傳하여 주어서 그로 하여금 自己가 얻은 것과 같은 經驗을 얻게 하자는 것이다.³⁶⁾

그러나 정경옥은 감리교의 종교성이 농축된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양자를 동시에 섭렵하면서도 복음주의가 지성을 등한시한 채 지나치게 감정주의에 편승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표했다.³⁷⁾ 또한 기독교가 사회 현실에 참여하여 당연히 실천적인 면을 강조해야 하지만 구속

36) 정경옥, 『基督教의 原理』, 4-6.

37) 앞의 책, 7.

의 경험을 전파하는 일에 권태를 느꼈다던지 이를 도외시함으로써 기독교 자체의 독특한 정체성과 사명감이 둔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경계했다.³⁸⁾

III. 실용주의 노선 분석

정경옥은 1927년 3월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9월에 개렛신학교에 유학하여 자신의 신학노선을 정립했으며, 특히 롤(F. H. Roll) 교수의 지도를 받아 실천과 직결된 경험주의 신학에 심취했다. 박대인에 의하면 롤의 신학사상 체계는 경험주의, 인격적 이상주의, 사회복음, 생명주의, 지식과 경험, 도덕적 관심, 적극적 생활태도 등으로 대별된다.³⁹⁾ 본 연구자는 롤의 이러한 신학사조는 정경옥으로 하여금 사회를 향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문화변혁을 추구하며 그의 신학을 현실성 있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끌어준 촉매제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정경옥이 이 유학생생활을 통해 종교적 감정 안에 내재된 신관을 중시한 슐라이에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의 종교경험을 인식했고, 구자유주의 신학자 리츨(Albrecht Ritschl)의 기독교 도덕성을 섭렵했다는 것이다.⁴⁰⁾

본 연구자가 파악한 바로는, 정경옥이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자신의 신학노선을 추구한 정황은 역사와 경험, 한국적 신학화로서의 토착화론, 신학이 지닌 역사성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의 숭고한 삶의 자취를 분석한

38) 앞의 책, 8.

39) 박대인, “鄭景玉 教授의 神學思想에 나타난 美國神學의 背景,” 180-190.

40) 정경옥, 『基督敎神學概論』, 4-5(“序”);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331;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13권)』(서울: 기독교문사, 1992), 963. ‘정경옥’ 항목. 슐라이에르마허는 형이상학이나 도덕에서 구별된 직관과 감정에 의거한 독특한 체험으로 종교를 파악했다. 리츨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근본적인 사상은 도덕적 또는 영적인 것이고, 그 나라는 사랑으로 감동된 행위를 통한 인간의 단체라고 보았다.

기독교 도덕관에서 두드러진다. 본 장에서는 그의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신학노선이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요 논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역사와 삶의 경험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

정경옥은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는 보수주의를, 신학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한다고 표방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자연신학과 계시신학 양자 중에서 굳이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자신은 복음주의 입장에서의 계시신학을 선택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앞서 본 논문 제2장 3절, “실용주의 지침으로서의 감리교 교리 이해”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말하는 복음주의란 필연적으로 ‘기독교 역사’와 ‘삶의 체험’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복음주의를 내건 그의 신앙과 신학은 삶의 현장과 지행일치(知行一致)에 역점을 둔 실용주의 체제로 귀착된다.

나는 「信仰에 있어서 保守主義이요 神學에 있어서 自由主義」란 立場을 取한다. 神學을 구태여 「自然神學」과 「啓示神學」의 두 가지로 區分하고 나더러 그 중에서 꼭 한 가지만 내 것으로 擇하라고 하는 均색한 質問을 한다면 나는 「슐라이얼막헬」(Friedrich Schleiermacher-연구자 주)이나 「으룻셀」(Albrecht Ritschl-연구자 주)이나 「빨트」(Karl Barth-연구자 주)가 躊躇할 것 없이 取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바 福音主義的 立場에 있어서의 「啓示神學」을 擇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啓示」가 人間의 經驗과 實體 上으로나 本質 上으로 區分된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다. 나 自身은 神學 上으로 보아서 「으룻셀」을 많이 배웠다. (중략) 「一般的 啓示」를 容認한다고 하여서 결코 「特殊的 啓示」를 否定한다는 아무런 理由가 되지 못할 것 같다.⁴¹⁾

41) 정경옥, 『基督教神學概論』, 4-5(序).

위의 인용문에서 정경옥이 바르트, 슐라이에르마허, 리츨 등을 소개한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실용주의 신학노선을 취하는 정당성과 명분을 뒷받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바르트의 지성과 슐라이에르마허의 감성, 그리고 리츨이 논하는 도덕적 관점과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는 요소들이 입체화하여 조화를 이룸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실용주의 신학노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정경옥이 자연신학과 계시신학 두 분야를 모두 용인하여 계시신학의 바탕 위에서 자연신학까지 폭넓게 포용하려고 했던 태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특수한 규범들을 법질서(law order) 즉 자연계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여 성경의 충족성을 암암리에 부정하고 상황윤리(situation ethics)를 주장했던 로빈슨(John Robinson)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플레처(Joseph Fletcher)의 관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가령 플레처가 사랑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키며⁴²⁾ 이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결단을 내린다⁴³⁾고 강조함으로써 절대규범을 부정하고 상황을 텍스트로 보았지만, 정경옥은 이와 달리 성경을 텍스트로 삼았고 실천적 교훈을 성경에서 발견하고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는 섭리의 차원에서 “계시가 역사인 것을 믿는다”라고 인정했고, 비록 부분영감설에 치우치기는 했지만(본 논문 제2장 1절), 감리교의 “敎理的 宣言”에 기술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에 충분한 표준이 된다는 관점에서 성경의 충족성을 고백했다.⁴⁴⁾

또한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정경옥의 자세는 『基督教神學概論』 제2장 “神學의 課題”에서 밝혔듯이 과거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을 깊이 섭렵하고 현재의 상황성을 심분 고려하여 삶의 현장에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42) Joseph Fletcher/김동수 역, 『상황윤리』(서울: 규문각, 1968), 164.

43) 앞의 책, 187.

44) 정경옥, 『監理敎敎理』, 32.

다. 이러한 일련의 숙고와 성찰은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이라는 현장에 놓여 있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지향한다.

神學概念 內容의 規定은 그 體系의 悠長과 意味關聯의 煩雜으로 因하여 一般的 理解에 到達하기 極難한 일이나 이것이 基督教神學인 以上 基督教의 歷史的 傳統을 基礎로 하여서 그 獨立의인 特異性을 保存하고 여기에서 理念의 要求와 時代的 理解에 依한 生命의 反省을 加하고 이로써 우리의 信仰生活에 基礎, 標準, 動因을 提供하려는 精神的 努力인 것으로 理解할 것이라고 말하였다.”⁴⁵⁾

본 연구자는 정경옥의 이러한 신학적 입장에 대하여 ‘역사와 삶의 경험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이라 명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또 한 가지 살펴야 할 점이 있다. 그의 실용주의 노선은 고전 실용주의 학자들인 퍼스(Charles Peirce), 제임스(William James), 듀이(John Dewey) 등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의 실용주의 노선은, 만물은 항존(恒存)할 수 없고 항상 유전(流轉)한다며 새로운 생성 그 자체를 진리로 규정했던 고대 희랍의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의 주장⁴⁶⁾이나 퍼스, 제임스, 듀이 등이 설파하는 실용주의 태도⁴⁷⁾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경옥은 “그리스도교의 근본적 원리가 시대를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교회 역사적 신조에 표명되었다”⁴⁸⁾라고 이해했다. 그가 말하는 ‘교회 역사적 신조’란 앞서 기술한 인간의 이성적 작용 및 그 산물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본 논문 제2장 1절). 그의 이러한 관점은 근본적 원리 즉 성

45) 정경옥, 『基督教神學概論』, 9.

46) Samuel E. Stumpf/이광래 역, 『서양철학사』(서울: 종로서적, 1994), 21.

47) 이들의 실용주의는 지식과제나 문제보다는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에 중심을 둔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내용의 철학이라기보다는 소위 방법의 철학(philosophy of method)이다. cf. 김영규, 『기독교교육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159-160.

48) 정경옥, 『監理敎敎理』, 10.

경이라는 ‘내용’은 항구적으로 보존하되 적용이라는 ‘형식’의 차원에 있어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재해석하여 설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즉 고착화되고 경직된 철학적 사변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을 근간으로 한 이성의 작용을 통하여 현실성 있는 실용적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는 소신을 보여준다. 그가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주의이지만 신학에 있어서만큼은 자유주의를 취한다고 밝힌 것도 결국 이러한 신념을 함축하는 그 만의 전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토착화론을 통해서 본 실용주의 노선

본래 ‘indigenization’으로서의 토착화란 각 지역마다 전통, 관습, 법제도 등 문화적 배경이 각각 다르게 형성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복음의 전달과정을 고려하려는 관점이다. 이 용어는 복음이 현장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과 방법론적인 면에서 순응하는 과정을 통칭한다.⁴⁹⁾ 주지하듯이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은 사상 및 신학적 논변에서 지나치게 서구신학 및 특정 현대윤리학자들의 논리에 기대는 경향을 보여준다.⁵⁰⁾ 그러나 정경옥은 토착화론을 통해 한국적 실용주의 노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헌했다.

정경옥의 토착화 논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안점은 종교의 본질적 진수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외부의 역사적 부가물에 녹여져 있던 종교의 본질을 그 부가물들과 함께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말고 순수하게 종교의 본질적 진수만을 정제하여 수용함으로써 이를 자신이 속한 역사

49) 안수강, “변선회(邊鮮煥)의 ‘타종교와 신학’ 소고,” 『신학과 복음』 제2권(2016), 40-41.

50) 이장형, “한치진을 통해 본 한국 기독교사상계의 기독교윤리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24집(2012), 35.

적 부가물에 다시금 새롭게 융해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진형은 정경옥의 이 주장에 의미를 부여하여 ‘신학의 향토화와 토착화’⁵¹⁾라고 명명했다. 정경옥은 실천적 노력을 효율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취지로 ‘時代精神’, ‘自民族’, ‘吸收’, ‘自己의 것’, ‘消化’, ‘自己의 文化 形態’, ‘鄉土化’, ‘時代化’라는 표현들을 구사하여 토착화론의 필연성을 설론했다.

自己와 自己의 것은 잊어버리고 外來의인 것만을 模倣하려는 것은 時代精神에 背馳된다. 우리는 먼저 自民族의 文化의 特異한 價値와 歷史的 地位를 自覺하고 (중략) 外來 宗教를 吸收할 境遇라도 그 宗教가 가져 온 異民族의 社會的 習慣이나 民族的 感情은 이를 버리고, 그러한 外部的 歷史的 附加物로부터 宗教의 本質的 眞髓를 解放하여 自己의 것으로 이것을 消化하고 理解토록 할 것이다. 基督教은 世界의 宗教이다. 그러므로 基督教을 解釋하는 方法과 그 形態는 自己의 文化形態에 비추어 鄉土化하고 時代化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⁵²⁾

본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정경옥의 토착화론은 기독교 윤리학자 리처드 니이버(H. Richard Niebuhr)가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소개한, 비록 세속문화가 선하더라도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점차 복음의 빛으로 견실하게 완성시켜나가야 한다는 논지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니이버는 이러한 양태의 문화 모델을 가리켜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above culture)⁵³⁾라고 규정했다. 정경옥이 주장하는 토착화론은 본 장 제1절의 “역사와 삶의 경험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과도 같은 맥락선상에 놓여있다. 그는 성경의 진리는 고유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항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한다. 그러나 한국

51) 김진형, “정경옥의 신학사상,” 『한국기독교사연구회 소식』 제27호(1989), 27.

52) 정경옥, “공관복음서의 형성연구,” 『神學世界』 제20권 1호(1934), 20, 44.

53)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2001), Ch. 4.

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현장에서는 어차피 이에 걸 맞는 다른 경험이 반영되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내용이 아닌 ‘형식’ 만큼은 얼마든지 적합하게 개조하고 응용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의 관점을 취한다.

정경옥의 토착화 논거는 이후 1960년대로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 거간에 걸쳐 다양한 양태의 토착화론으로 세분화되고 확장되었다. 이 맥락은 ‘한 멋진 삶’으로 대변되는 유동식의 ‘풍류도(風流道) 신학’, 유교사상과 접목된 윤성범의 ‘성(誠)의 신학’, 민중의 삶의 현장을 직시한 안병무, 서남동, 현영학 등의 ‘민중신학’으로 외연되었다.⁵⁴⁾ 한 걸음 더 나아가 변선훈은 1960년대의 토착화신학과 1970년대의 민중신학을 넘어서서 종교다원주의를 도입하여 새로운 신학체계로 정착시켰다.⁵⁵⁾ 송길섭의 주장에 의하면 정경옥은 이미 해방 이전부터 기독교와 타종교 간의 대화까지도 예견하고 있었을 정도였다.⁵⁶⁾ 그러나 그는 일면 타종교에 대한 포용성과 이해를 주장하면서도 후학들인 유동식, 윤성범, 안병무, 서남동, 현영학, 변선훈 등과는 달리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자신의 신학적 노선을 공고히 다졌고 타종교에 기독교의 절대성을 양보하지 않았다.

54) 풍류도 신학, 성의 신학, 민중신학을 대표할 만한 주요 문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동식전집 간행위원회(편), 『柳東植全集(7-9)』(서울: 한들출판사, 2009); 윤성범전집 편집위원회(편), 『한국 유교와 한국적 신학』(서울: 감신, 1998); CTC-CCA, *Minjung Theology*(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3).

55) 안수강, “변선훈(邊鮮煥)의 ‘타종교와 신학’ 소고,” 36. 변선훈의 종교다원주의를 대변할 만한 문헌으로 다음 글을 참고할 것. 변선훈, “타종교와 신학,” 김승철(편),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201-251.

56)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341-342. 정경옥 이후의 세대에 나타난 이러한 새로운 신학 조류는 급격하게 형식이 본질을 대치하는 혼합주의 양태로 이탈해감으로써 안타깝게도 한국기독교계의 보수신학이 위축되고 종교다원주의까지 논의될 정도로 진보주의 신학이 활성화되는 동인이 되었다.

3. 신학의 역사성을 통해서 본 실용주의 노선

정경옥은 신학 연구방법론에 있어 보수적 방법론과 진보적 방법론 양자 모두에 대해 과감하게 비판을 가하고 신학탐구의 대상을 세 가지로 설정하여 자신의 실용주의 신학노선을 전개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양극화를 보여주는 보수주의 입장과 진보주의 입장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종교의 역사적 특수성’과 ‘인간의 이성’ 양면을 병립하여 중용(中庸)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보수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을 배제함으로써 종교생활의 반성과 사색의 의의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해왔고, 진보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역사적 특수성을 간과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정경옥은 신학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역사적 특수성과 인간의 이성 양자를 한 지평에서 조망함으로써 삶의 현실에 가장 유익한 실용적 신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基督教 神學은 狹義로 볼 때에 基督教의 正經에 있는 啓示를 解釋하거나 模倣하려고 하는 體系의 方法이라고도 하고 或은 教會가 神의 指示를 받아 制定한 敎理와 信條를 正當하게 宣布하며 主張하려는 學文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反面에 神學이란 述語를 廣義로 보아서 이는 基督教의 傳統을 權威化하려는 方法인 것보다도 宗教一般의 眞理主張에 대한 哲學的 批判을 加하는 것을 任務로 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중략) 前者는 神學의 領域에서 理性의 地位와 價値를 排除할 뿐 아니라 宗教生活에 있어서라도 反省과 思索의 意義를 無視하는 傾向이 있고 後者는 宗教의 歷史的 特殊性을 無視하고 먼저 그 普遍의 事情을 誘導하려는 誤謬에 빠지게 된다.⁵⁷⁾

정경옥은 이성에 의한 신학탐구의 대상으로서 큰 틀에서 역사신학, 이론신학, 실천신학 등 세 분야를 설정했다. 그는 역사신학은 과거에, 이론

57) 정경옥, “現代主義의 強要와 批判,” 『神學世界』 제20권 4호(1935), 3-4.

신학은 현재에, 실천신학은 미래의 시상(時相)을 열어주는 현재적 실천에 연계했다. 물론 그는 세 시상 가운데 실천의 장으로서의 현재적 시상에 큰 비중을 두었다. 그가 제시한 시간선상에서의 신학탐구의 대상과 방법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학탐구의 대상

- a. 역사신학(과거경험) b. 이론신학(현재이성) c. 실천신학(미래의 실천을 목표로 삼음)

② 방법론

- a. 역사신학: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그리스도 경험과 역사적 경험에서 기독교신학은 출발한다(신약성경, 교회사의 의식과 제도, 이상과 사업, 교리와 신조, 신앙고백과 자서전, 기타 기독교 문서)
- b. 이론신학: 기독교신학은 역사적 경험을 고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다. 이 역사적 경험을 종교적 내적 반성을 통하여 외적 이론형식으로 실생활의 행동의 원칙과 표준을 만든다(영원한 가치가 있는 원리로서 고양하려는 활동).
- c. 실천신학: 기독교신학은 반드시 실천적 지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⁵⁸⁾

정경욱이 말하는 역사신학은 과거의 경험을 보존하여 유의미한 유산으로 적립한다는 차원에서, 이론신학은 과거의 역사적 유산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실천신학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실천을 도모하고 추진해나감으로써 미래를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역사학자 호리고메 요조(堀米庸三)가 강조한 것처럼 과거사가 지니는 역사로서의 객관성은 여기에서 그리

58) 앞의 글, 4-8. 이 내용은 본 연구자가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고 지금이라는 현상계의 실존적 의미를 담은 게시히테(Geschichte)로서의 주관성을 지니게 될 때 비로소 미래지향적 가치와 생명력을 갖게 된다.⁵⁹⁾ 정경옥의 실용주의 신학은 철저하게 과거를 분석하는 노력과 현재의 개척정신, 그리고 미래지향적 기대를 반영하는 구조로 일체화되어 있다.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직선사관 시상을 한 라인 위에 올려놓고 탐구한 그의 신학방법론은 실용주의 역사관이라는 심오한 혜안(慧眼)을 보여준다. 특별히 그가 열정적으로 활동한 시점은 삼일독립운동 이후 보수진영에서 복음의 본질이 영혼구원에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참여에 소홀함으로써 텍스트와 현상(現像)의 컨텍스트를 단절시키는 폐단을 낳은 뼈아픈 시기이기도 했다.⁶⁰⁾ 이 점에서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는 직선사관과 시상에 입각한 실용주의 신학노선은 더욱 가치가 부각된다.

4. 기독교 도덕관을 통해서 본 실용주의 노선

기독교 윤리학자 박봉배는 정경옥이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 큰 틀에서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받아들였다고 파악했다. 그는 정경옥이 윤리학과 관련된 체계성 있는 논문을 별로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의 모든 글 속에 윤리적인 색채와 도덕적인 강조점이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관점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⁶¹⁾

정경옥은 스스로도 “나는 예수의 一生을 몹시도 憧憬하며 思慕하고 있다”⁶²⁾라고 고백했으며, “사람의 最高 理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人格

59) 堀米庸三/박시중 역, 『역사를 보는 눈』(서울: 개마고원, 2008), 87-95.

60) 이장형, “신자생활의 첩경”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의 윤리인식, 『기독교사회윤리』 제29집(2014), 423.

61) 박봉배, “鄭景玉의 神學과 倫理,” 61-62.

62) 정경옥, 『그는 이렇게 살았다』(서울: 애린사회사업연구출판부, 1953), “序”.

에 實現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크신 人格은 人間經驗에서 成就하여 얻은 最高 頂點이다.”라고 감격했다.⁶³⁾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特殊한 宗教信仰의 歷史的 表現이며 進步 發達하는 生活 自體이며 個人과 社會生活의 動的 標準”⁶⁴⁾이라고 천명했다. 이처럼 그의 도덕관에는 경험을 통해 체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를 신앙하고 실천하는 ‘기독교’가 초석으로 자리 잡는다. 정경옥의 기독교 도덕관을 보여주는 탁월한 저작으로서 그가 병환으로 진도에 요양하던 당시 저술했던 『그는 이렇게 살았다』⁶⁵⁾를 들 수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부터 최후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즉 구유에 눕히신 때로부터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걸쳐 보여주시는 롤 모델로서의 그리스도의 도덕관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했다. 제1장 “現代의 基督”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구유의 基督”, 제3장에서는 “江邊의 基督”, 제4장에서는 “曠野의 基督”, 제5장에서는 “山上의 基督”, 제6장에서는 “路傍의 基督”, 제7장에서는 “庭園의 基督”, 그리고 마지막 8장에서는 “十字架의 基督”을 소개했는데 그리스도의 생애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도덕관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구유의 基督: a. 진리의 화신(요1:14), b. 종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빌립보서 2장) c.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의 표시(눅2:11)
- ② 江邊의 基督: 요단강 수세. 우리의 일생에도 요단강이 있어야 한다.
 - a. 타락한 생활, 더럽혀진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과

63) 정경옥, “나의 信條,” 『神學世界』 제17권 3호(1932), 18.

64) 앞의 글, 14.

65) “이제 이 한해가 다 넘어 가기 전에 이 적은 책 하나라도 내어 놓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지금 나는 예수의 一生을 몹시도 憧憬하며 思慕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살았다. 그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리. 一九三八年 二月 七日 珍島에서 著者 鄭景玉” 정경옥, 『그는 이렇게 살았다』, “序”.

동행하는 삶 b. 기도 c. 순결과 헌신

- ③ 曠野의 基督: 시험받으시는 광야의 예수. a. 사상의 광야(옛 사람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기록하였으되”) b. 도덕의 광야(떡, 外華, 권욕)- 시험에 승리하심
- ④ 山上의 基督: 산상보훈, 제자 선택, 변화산, 고독하실 때
- ⑤ 路傍의 基督: 산에서 내려와 인간의 거리에 나타나심. a. 노방의 예수는 사랑의 사람 b. 믿음의 사람 c. 능력의 사람
- ⑥ 庭園의 基督: 목요일 겹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에 젖은 그리스도. a. 번민 b. 인고 c. 고독
- ⑦ 十字架의 基督: a. 희생의 가치 b. 순결의 가치 c.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심⁶⁶⁾

정경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행적을 중심으로 분석한 도덕관은 다음 네 가지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논점을 시사해준다.

첫째, 그의 도덕관 전개는 구원의 은총을 기반으로 하여 응당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으로 도식화 되어 있다. 즉 구원의 은총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상호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그는 이 저서 첫 장에서 ‘現代의 基督’을 전개하면서 “예수를 모셔다 놓기만 하지 말고 예수를 깨워야 한다. 그가 우리의 風浪을 잔잔케 하실 것이다. 이제는 生活 全面에 있어서 教會의 組織과 活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生命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니될 時期”⁶⁷⁾라며 ① 예수의 사상을 우리의 생활에 살릴 것, ② 예수의 인격을 우리의 생활에 살리도록 힘쓸 것, ③ 예수께서 나타내신 구속의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⁶⁸⁾

66) 이 내용은 본 연구자가 주제별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정경옥, 『그는 이렇게 살았다』, 제2장-8장.

67) 앞의 책, 14.

68) 앞의 책, 11-25.

둘째, 정경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관을 고찰할 때 단지 공생에 시기의 특정한 사역이나 일정 기간의 단편적 생애만을 보고 분석했던 것이 아니라 탄생으로부터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망라하여 그리스도의 일생을 총체적으로 파악했다. 그는 제2장부터 마지막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시적으로 전개했다. 바빙크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신앙의 생활’ 그 자체이다.⁶⁹⁾ 정경옥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도덕관을 연대기적으로 분석해냄으로써 모든 기독교인들이 평생 헌신적으로 현실에 침투하여 순례자의 삶을 살 것을 독려하고자 했다.

셋째, 현상계와 천상계를 이분법적으로 단절 짓지 않고 일원적으로 통합하여 조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등장하는 ‘요단강’, ‘광야’, ‘산상’, ‘거리’, ‘노방’, ‘갯세마네 동산’ 등의 현장은 마땅히 기독교인들이 순례자로서 걸어야 할 지상에서의 삶의 처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해방 전 한국기독교, 특히 보수진영이 사회현실을 간과한 채 복음전파의 명분과 내세 지향적인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천상과 지상의 이원론적 사고가 팽배할 무렵⁷⁰⁾ 정경옥은 이 저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를 밀도 있게 조명함으로써 현상계에 펼쳐진 사회현장을 주목했다.

넷째, 정경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행적을 통해 도덕적 이상과 성취를 논하는 과정에서 삶의 현장과 현실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해냄으로써 뚜렷하게 실용주의 노선을 보여주었다. 제2장 “구유의基督”으로부터 마지막 8장 “十字架의基督”에 이르기까지 생생하게 엮어낸 예수 그리스

69) Herman Bavinck/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 503.

70) 이러한 동향을 지적하여 비판한 문헌으로서 춘원 이광수의 글이 있다. 이광수, “今日朝鮮耶穌敎會의 欠點,” 『青春』 제11호(1917), 76-83. 이광수는 이 글에서 한국기독교가 영혼구원과 전도사역만을 지고의 명분으로 삼아 사회현장을 도외시하는 처사에 대해 비판했으며 계급화, 교회지상주의, 교역자의 무지, 무속신앙으로의 전락 등 각종 부조리한 현상들을 질타했다.

도의 삶을 통해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이라는 현장과 실천적 삶을 아우르는 실용주의 노선을 설득력 있게 역설했다. 이러한 기법은 본 논문 제3장 3절, “신학의 역사성을 통해서 본 실용주의 노선”에서 논한 역사신학, 이론신학, 실천신학 분야가 분담할 책무와도 면밀하게 상통한다. 그리스도의 행적은 과거로서의 역사신학에, 그리스도의 생애에 내재된 교훈을 분석하는 일은 현재로서의 이론신학에, 그 교훈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은 미래지향으로서의 실천신학에 접목시킬 수 있다.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정경옥이 남긴 저서들을 통해 그의 실용주의 신학노선을 고찰했다. 그는 자신의 신학사상에 실용주의 정신을 깊이 관철함으로써 삶의 신학을 구현해내고자 했다. 그가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여준 신학의 요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경옥의 성경관 및 감리교 교리관은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해 있다. 그는 성경에 대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표준이 된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간 내면에서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합리적인 이성을 중시했다. 그는 실용적 관점에서 현 시대에 적합한 이성의 작용이 성경에 투사될 때 믿음과 행위의 참 가치가 삶의 현장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또한 실용주의 에큐메니즘에 입각하여 포용의 정신을 중시함으로써 교리의 융통성을 주장하고 인격을 가늠하는 도덕성과 경건을 교리보다 우위에 두었다. 그는 감리교가 내세우는 보편적 신앙에 대해서는 경험과 거룩이라는 두 축으로 압축하여 거룩을 경건주의에, 경험을 복음주의에 연계함으로써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실용주의 신학체계를 정립하고자 했다. 그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가 한 지평에서 견실하게 결합된 양태를 가리켜 ‘생의 宗教’라고 정의했다.

둘째, 정경옥의 실용주의 노선은 역사와 경험, 토착화론, 신학의 역사성, 기독교 도덕관에서 돋보인다. 그가 말하는 복음주의는 기독교의 역사와 경험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현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관점으로 귀결된다. 그가 내세우는 실용주의 노선은 성경이라는 고유한 ‘내용’을 보존하면서 적용 차원의 ‘형식’의 문제에서는 현실에 적합하도록 이성적 재해석과 보완의 과정을 개입시킴으로써 복음적 실용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퍼스, 제임스, 듀이 등 과거의 전형적인 실용주의자들과는 노선을 달리한다. 그의 토착화 논지의 핵심은 종교의 본질적 진수를 자신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적 진수만을 정제하여 수용함으로써 새롭게 우리 실정에 적합한 향토화와 시대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한편 그는 신학의 역사성을 통해서도 실용주의 노선을 피력했다. 신학탐구의 대상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직선사관을 도입하여 역사신학, 이론신학, 실천신학이 지닌 사상적 의의를 논했다. 역사신학은 과거의 경험을 버리지 않고 유산으로 적립한다는 차원에서, 이론신학은 과거의 역사적 유산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분석 성찰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실천신학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실천을 도모하고 추진함으로써 미래를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각 신학분야가 감당해야 할 소임을 밝혔다. 그의 기독교 도덕관 역시 실용주의 노선에 가치를 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의 행적을 통해 도덕적 이상과 성취를 논했고 이를 철저히 삶에 접맥시킴으로써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했다. “구유의 基督”으로부터 “十字架의 基督”에 이르기까지 그가 생명력 있게 엮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히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라는 현장과 실천을 아우르는 실용주의 노선을 보여준다.

본 논문 제1장 1절, “연구의 필요성”에서 언급했듯이 초기 한국기독교는 종교개혁기의 개혁정신을 방불할 정도로 구령사역과 아울러 경건한

삶과 성화에 열정을 기울였다. 그러나 백년이 넘는 영욕과 질곡의 역사를 거쳐 오는 동안 한국교회는 점차 세속화의 조류에 휩쓸렸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은 한국기독교가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성스런 책무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고전 정도로만 간직한 채 각자의 소신에 옳은 대로 처신한데서 비롯되었다. 정경옥은 종래 한국기독교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현세와 내세의 이원화를 극복하고 사회와 현장을 주시함으로써 성경의 실용화를 도모했던 뛰어난 선각자였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성경을 문자화된 경전으로만 전락시키지 말고 정경옥이 솔선수범했던 것처럼 삶에 적용하여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13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2.
- 김영규. 『기독교교육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 김진형. “정경옥의 신학사상.” 『한국기독교사연구회 소식』 제27호(1989), 23-27.
- 김철손. “鄭景玉과 聖書研究.” 『神學과 世界』 제5호(1979), 22-46.
- 김희수. “기독교윤리와 성경.” 『기독교사회윤리』 제4집(2002), 131-167.
- 민경배. 『韓國基督教會史』.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박대인. “鄭景玉 教授의 神學思想에 나타난 美國神學의 背景.” 『神學과 世界』 제5호(1979), 173-205.
- 박봉배. “鄭景玉의 神學과 倫理.” 『神學과 世界』 제5호(1979), 47-70.
- 박형룡. 『教義神學 序論』.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 변선환. “타종교와 신학.” 김승철(편).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나단, 1993, 201-251.
-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 심광섭. “철마(鐵馬) 정경옥의 복음적 삶(生)의 신학.” 『神學과 世界』 제70호(2011), 120-153.
- 안수강.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9집(2014), 139-180.
- _____. “변선환(邊鮮煥)의 ‘타종교와 신학’ 소고.” 『신학과 복음』 제2권(2016), 35-61.
- 유동식전집 간행위원회(편). 『柳東植全集(7-9)』. 서울: 한들출판사, 2009.
- 윤성범전집편집위원회(편). 『한국 유교와 한국적 신학』. 서울: 감신, 1998.
-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 『青春』 11(1917), 76-83.
- 이덕주. “초기 한국교회 토착신학 영성: 최병헌과 정경옥의 신학과 영성을 중심으로.” 『神學과 世界』 제53호(2005), 189-221.
- _____. “한국 감리교회 신앙과 신학 원리에 대하여: 1930년 <교리적 선언>과 정경옥의 《基督教의 原理》를 중심으로.” 『神學과 世界』 제44호(2002), 106-133.

-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 이장형. “신자생활의 침경”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의 윤리인식.” 『기독교사회윤리』 제29집(2014), 415-440.
- _____. “한치진을 통해 본 한국 기독교사상계의 기독교윤리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24집(2012), 33-66.
- 임성빈. “21세기 초반 한국 교회의 과제에 대한 소고-공공신학적 관점에서.” 『長神論壇』 제47권 2호(2015), 179-207.
- 전용환(편). 『감리교신앙생활』.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92.
- 정경옥. 『監理敎敎理』. 서울: 신생사, 1966.
- _____. “공관복음서의 형성연구.” 『神學世界』 제20권 1호(1934).
- _____. 『그는 이렇게 살았다』. 서울: 애린사회사업연구출판부, 1953.
- _____. 『基督教神學概論』. 경성: 감리교회신학교, 1939.
- _____. 『基督教의 原理』. 경성: 감리교회신학교, 1935.
- _____. “나의 信條.” 『神學世界』 제17권 3호(1932), 14-20.
- _____. “現代主義의 強要와 批判.” 『神學世界』 제20권 4호(1935).
- 차영배. 『H. Bavinck의 神學의 方法과 原理』.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5.
- 차풍로. “鄭景玉의 神學과 生活에서 본 人格主義敎育.” 『神學과 世界』 제5호(1979), 71-96.
- 堀米庸三/박시중 역. 『역사를 보는 눈』. 서울: 개마고원, 2008.
- Bavinck, Herman./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Brown Dale W./오창윤 역. 『경건주의 이해』.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CTC-CCA. *Minjung Theology*.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3.
- Fletcher, Joseph./김동수 역. 『상황윤리』. 서울: 규문각, 1968.
- Harrison, Everett F. (ed.)/신성종 역. 『Baker's 신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6.
- Niebuhr, H. Richard. *Christ and Culture*.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2001.
- Ogburn, William Fielding. *Social Change With Respect to Culture and Original Nature*. S. I.: Andesite Press, 2017.
- Stoeffler, F. Ernest. *The Rise of Evangelical Pietism*. Leiden: E. J. Brill, 1965.

Stumpf, Samuel E./이광래 역. 『서양철학사』. 서울: 종로서적, 1994.

Van Til, Cornelius. *The Defence of the Faith*.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논문투고일: 2018년 12월 27일

심사게시일: 2019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10일

• 국 문 초 록 •

정경옥은 1903년 진도에서 출생하여 1945년 42세를 일기로 소천하기까지 일제 식민치하에서 고명한 감리교 목사로, 조직신학자로, 기독교 저술가로, 신학교 수로, 그리고 설교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다.

이 논문은 정경옥의 실용주의 신학을 고찰함에 있어 경건성과 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성경관 및 감리교 교리관',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별히 이 논문에서는 그의 신앙고백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신학적 사고를 분석함에 있어 그의 기독교 본질에 관한 주요 신학적 노선과 논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정경옥의 내면적 신앙고백과 실용주의 신학의 주요 양상들을 분석할 것이며 그의 '실용주의 성경관', '반(反) 교리주의', '실용주의 관점에서의 감리교 교리 이해' 등을 다룰 것이다. 셋째, 그의 실용주의 노선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와 경험', '토착화신학', '신학의 역사성', '기독교 도덕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주제어: 정경옥, 실용주의 신학, 성경, 성화, 경건
